

###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차 분양

# LH 분양가 높이기에 전남도 강력 반발

#### 전남도 “세분화 비용 기업 전가 문제… 투자유치 위축” 시행사 “도로·토지 형상 변경으로 가격 인상 불가피”

필지 세분화를 거쳐 2차 분양에 들어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가를 놓고 전남도와 LH 등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려는 LH 등 시행사 측에 전남도가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 사업과 관련 잇따른 투자협약이 성사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5일 “빛가람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2차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인상을 계획 중인 시행사에 1차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사인 LH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은 전체 84필지(41만 4000㎡) 중 지난해 4월 1차로 7필지(15만 9000㎡)를 분양하고 다음주에 2차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이전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지나치게 크게 필지를 구획해 기업 등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필지를 작게 나누는 ‘세분화’ 요구가 잇따르자 LH 등 시행사는 미분양된 6개 필지 25만 1000㎡(7만 6000평)를 모두 81개 필지로 하고, 유치업체에 신성장 동력, 병원, 특

성화고, 대학 산하 연구기관 등을 추가했다.

올 초 변경절차를 마친 LH 등이 2차 분양에 나서려했으나 이번에는 전남도가 제동을 걸었다. LH 등이 ㎡당 분양가를 38만 7000원으로 설정해 1차 분양 시 분양가(35만 1000원)에서 3만 6000원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초 LH 등은 조성원가(42만원)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이 커 토지 재개발을 통해 가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더 놓이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가 변경되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분양 축진을 위해 필지를 세분화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중 2·3차 분양을 하면서 가격을 올린 곳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기업 투

자 유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 LH 등 시행사들이 미분양 면적(81필지) 전체가 아닌 절반만 2차 분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LH에 공문을 보내 “입주기업에 대한 편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사의 이익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전체 분양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LH 등 시행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학·연 간 공동 협력 발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켜 국가균형발전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까지 52개 업체가 전남도와 빛가람혁신도시 내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에너지·ICT 전문기업인 누리텔레콤, 케이비엠 등은 입주 시기를 저율절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 국회의장이 앞장서 달라

#### 5·18단체, 오늘 면담서 요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의장 면담에는 김영진 5·18아카이브실립추진위원장, 차명석 5·18기념재단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김정길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국회의장은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과 제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달에는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올해 5·18기념식 날, 노래가 제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 보존처장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대통령께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방문단은 이번 면담에서 지난 2013년 6월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이후 보존처장 지정절차 추진 약속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애곡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의 국회 통과도 요청할 계획이다.

방문단은 “이번 면담이 최근 박 대통령-여야대표 영수 회담시 야당 대표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요구에 대해 ‘보훈처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발언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경북도 직원 상생화합

#### 영산강 자전거 종주 나선다

전남도와 경북도 공무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영호남 상생화합을 위해 140km 영산강 종주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공무원 취미클럽인 두바퀴동호회 20명과 경북도청 공무원 자전거동호회 20명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자전거로 영산강을 종주한다. 담양댐~영산강하구둑~전남도청 구간을 함께 달린다. 동호회 회원들은 전남도청에 도착해 낙동강과 영산강을 합수식을 한다. 올해 하반기 경북도청의 신도청 이전에 맞춰 현 도청에서 신도청까지 164km의 낙동강도 함께 종주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발전 공동선언문 채택에 따른 후속 차원에서 이뤄졌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영호남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궁화 식수하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무궁화를 식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란 핵협상 타결, 북핵 해결 도움 안돼”

### 美 WSJ 지적

이란 핵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기는 고비 끝에 지난 2일(현지시간) 사실상 타결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점차 북한으로 모이고 있다. 북한 핵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4일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면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킨 경험과 교훈은

북한 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과 이란은 핵 보유 지위에서 완전한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지만, 북한은 이미 1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해체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은 경제 문제 외에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북한

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아울러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의 소리(VOA)에 나와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면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핵문제 관련 협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현저히 줄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이번 잠정타결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이 신

문은 전망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우리나라 농축을 위해 현재 가장 중인 1만9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최종 합의문에 따라 6104개로 줄이고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현재의 1만kg에서 300kg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최소 15년간 최소 3.67%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IAEA가 이란이 핵 관련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박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

### 한국갤럽 조사... 석달만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석달 만에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40%가 긍정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첫째 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한 것과 같은 수치로 이후에는 20~30%대에 머물렀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2%포인트 상승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지지율은 70%, 50대의 지지율은 60%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40대 지지율은 30%, 30대 지지율은 20%, 20대 지지율은 14%로 젊은층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7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 새정치연합 27%, 정의당 3%, 없음 또는 의견유보가 30%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nlay를 이용한 시술/최초정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딧,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